

미셸 우엘벡의 작품에 드러나는 여성혐오 연구

강민수

(연세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20세기 말에 등장한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벡은 작품 내외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야기했다. 그중에서도 작품 속에서 여성과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방식의 저속함과 외설성은 작가에게 여성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이 적나라한 표현의 뒤에는 작가의 반어법적 의도가 숨어 있다.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받는 표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적 가치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 감춰져 있다. 작가가 자의적으로 가정하고 옹호하는 여성적 가치와 이에 대립되는 남성적 가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의 여성혐오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작가에게 남성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주의와 경쟁이다. 우엘벡은 이 남성적 가치관을 현대 서구의 악을 구성하는 중심 체제로 파악하고, 이 속에서 양산되는 경제적, 성적 빈곤화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두 테마는 작가의 첫 작품에서부터 이후 계속 이어지는 현대 사회 비판의 핵심 요소이다. 우엘벡은 여성 혐오의 작가로 분류하기 전에 우선은 남성 혐오의 작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미셸 우엘벡, 여성혐오, 남성혐오, 포르노그래피, 자유주의

1. 들어가며 : 논쟁적 작가 미셸 우엘벡

1994년 발표된 첫 소설 『투쟁 영역의 확장 *Extension du domaine de la lutte*』 이후, 미셸 우엘벡은 끊임없는 문학적 논쟁에 휘말렸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논쟁거리는 문체적 단조로움이 가져오는 문학적 자질에 대한 논란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을 끌었던 것은, 소설 속에 실제 단체의 이름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차용한다던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숨

기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인한 끊임없는 법정 소송의 문제들이었다. 이로 인해, 언론은 우엘벡이 이러한 작품 내외적 문제들을 상업적 판매에 이용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야기한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게다가 작가 자신도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명백히 ‘비정치적 올바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엘벡은 반동적 극우의 범주에 자동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작가와 작품을 둘러싼 논쟁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은 이슬람 관련 담화였다. 잡지 *Lire*와의 인터뷰가 여론과 이슬람 커뮤니티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다. 잡지와의 인터뷰 중 언급한 “가장 명칭한 종교는 바로 이슬람(La religion la plus con, c’est quand même islam)”이라는 표현이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2001년 발간된 세 번째 소설작품 『플랫폼 *Plateforme*』의 특정 내용이 야기하는 이슬람 혐오적인 표현이 프랑스 내 무슬림들의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이슬람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 아이들, 임신한 여성들이 총탄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엄청난 희열을 느끼곤 했다”(Houellebecq 2001:357)는 표현, 그리고 이집트 관광가이드와의 대화에 담긴 이슬람의 반계몽주의적 특성들의 열거를 통해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작품 내 등장하는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인 비난들이 작가의 언어인지, 작품의 인물들의 언어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엘벡의 실제 인터뷰와 그의 전작에는 반이슬람적 뉘앙스를 담은 발언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우엘벡 논쟁은 이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아성애, 매춘, 동성애 혐오, 영아살해, 섹스투어, 사도마조히즘, 근친상간 등의 갖가지 금기적 주제들이 작품 내에서 자주 등장한다. 『플랫폼』에서 섹스투어 상품을 기획하는 관광 회사의 간부인 장이브는 미성년자인 베이비시터와 성관계를 갖는 인물이며, 자신의 딸과의 성관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2019년 출간된 『세로토닌 *Sérotonine*』에서도 독일인 소아성애자가 등장하여 프랑스인 소녀와 비정상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밖에도 작가의 스와핑 클럽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에서 세 명이 함께하는 성행위나 커플들 간의 스와핑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묘사된다. 몇몇 비평가들은 소설상의 인

물일지라도 작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작가의 기본적 윤리의식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측면에서 금기를 넘어서는 ‘위반적 transgressif’ 작가의 그룹에 우엘벡을 분류하기도 한다.(Van Wesemael 2011:35)¹⁾

그중에서도 여성혐오는 우엘벡을 둘러싼 문학적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목이다. 특히 우엘벡에게 가해지는 여성혐오에 대한 비판은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성행위 묘사의 과정에서 여성 성기에 대한 외설적인 표현들을 여과 없이 차용한 것, 그리고 68혁명에서 비롯된 여성의 성적, 사회적 해방에 대한 우엘벡의 냉소적인 시선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엘벡 작품 속에서 여성과의 성적 관계 묘사는 철저히 남성 입장에서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남성 중심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성행위 묘사 속에서 여성의 육체와 성기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다루어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된 여러 표현들은 여성혐오라는 주제 아래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우엘벡의 여성혐오적 혐의를 둘러싼 논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상 가능하듯 작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에 대한 변론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²⁾ 우엘벡 문학의 여성혐오성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연구자 무리엘뤼시 클레망 Murielle-Lucie Clément은 우엘벡의 성적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발췌, 제시하면서 여성 육체에 대한 혐오, 여성의 성적 도구화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Clément 2018:175). 반면에 브뤼노 비아르 Bruno Viard와 노박르슈발리에 Agathe Novak-Lechevalier의 경우, 외설적인 표현 뒤에 숨은 함의를 분석하여, 우엘벡의 여성혐오에 대한 반론을 펼

1) 본 연구의 핵심 주제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우엘벡이 ‘위반’의 작가로 구분된다는 것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사회의 금기들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엘벡을 위반적 작가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은, 반베세마엘의 성급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각종 논쟁적 주제와 표현들이 나타나지만, 우엘벡이 작품 속에서 묘사하는 위반의 특징들은 궁극적으로 위반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주로 우엘벡의 성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함’은 우엘벡의 작품 활동 초기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논쟁이 되었던 반면, 우엘벡의 여성혐오 개념을 재해석하여 그를 여성혐오적 비판에서 구출하려는 논의들은 그 이후에 전개되었다.

치면서 그에게 씌워진 여성혐오를 벗겨내고자 한다(Novak-Lechevalier 2018 참조). 다 로차 소아레스 Corina Da Rocha Soares 또한, 우엘벡의 여성 혐오적 표현들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우엘벡 작품 속 인물들의 특징과 문학적 표현들이 언제나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상기시키면서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독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Da Rocha Soares 2010 참조). 낭시 위스통 Nancy Huston의 경우, 우엘벡의 여성혐오성이 여성적 가치에 대한 찬양과 함께 역설적으로 제시되었다고는 파악하지만, 동시에 페미니스트에 대한 우엘벡의 반감을 지적하고, 여성들을 개인주의를 심화시킴으로써 가정을 파괴하는 주체로 판단한다고 분석한다(Huston 2004:297). 이처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외 학계에서는 우엘벡의 여성혐오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국내에서 우엘벡의 여성혐오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정승옥의 연구 「포르노그래피, 에로티시즘 그리고 문학」(2012)에서 소설 『소립자』를 중심으로 에로티시즘과 포르노그래피적 선정성에 대한 예술적 경계에 대한 분석을 발견할 수 있으나, 여성혐오 논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혐오를 둘러싸고 우엘벡에게 가해지는 주요 비판 지점들에 대하여 점검하면서 우엘벡의 작품에 드러난 여성혐오적 특징을 확인하고, 그 근거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에 대한 우엘벡의 왜곡된 인식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반된 독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엘벡의 여성혐오적 특징들을 부정하거나 작가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다만,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독해를 경계하고 텍스트 뒤에 숨어 있는 작가의 복합적인 뉘앙스를 읽어냄으로써 우엘벡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엘벡의 여성혐오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될 것이다. 작가에게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고, 여성성의 대척점에 놓인 남성성에 대한 작가의 평가, 무엇보다도 68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엘벡에게 제기되는 핵심 비판, 즉 여성을 남성에 봉사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엘벡이 ‘남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에 대한 시선’을 투영한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우엘벡의 여성 논쟁은 작품 속에

나타난 금기위반, 반(反)정치적 올바름으로만 읽어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를 단순히 여성혐오적 작가로 분류하기에 앞서, 작가에게 씌워진 여성혐오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의 여성혐오적 특징들과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엘백을 단순한 여성혐오적 작가로 분류하지 않고 그가 묘사하는 여성성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엘백의 작품 속에 나타난 성적 영역의 금기위반적인 소재들의 거의 대부분은 금기가 해제된 현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시선을 드러내기 위해 철저히 반어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여성혐오적 특성의 이면에, 우엘백이 여성을 인식하는 특성은 자신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남근주의로부터 분리해서 고찰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성혐오적 표현으로서만 작가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여성혐오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우엘백은 온전히 구출하려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가 가진 여성과 여성적 가치에 대한 관점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II. 포르노그래피로 대상화된 여성

우엘백의 작품 속에 드러난 여성의 신체는 포르노그래피의 배우처럼 대상화된다. 즉, 우엘백에게 제기되는 여성혐오에 대한 주요 논쟁점은, 철저히 남성적 시선에 포착된 여성 성기와 신체에 대한 외설적 단어 선택을 통해 여성의 신체와 성행위를 남성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에 나타나는 표준화된 육체와 기계적인 성행위의 묘사 등을 통해 우엘백의 남성 주인공들은 여성들의 신체를 포르노그래피적 욕망의 도구로 간주하고 여성의 신체는 남성들의 시선을 통해서만 포착된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 주인공의 시각 속에서 욕망 충족을 위해 파편화되고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남성 인물들의 성적 판타지는 매춘에서부터, 일상적인 유혹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계, 섹스투어 및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레즈비언과의 성관계 장면 등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기는 남성적 시선에 따른 지속적인 명칭을 통해 묘사된다. ‘관음증적 시선’은 우엘벡의 남성들이 언제나 여성의 육체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포르노그래피적 성행위 묘사, 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용어들의 사용은 작품 판매를 위한 상업적인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정도로 노골적이다.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성적 묘사들은 첫 작품『투쟁 영역의 확장』에서부터 등장하여, 두 번째 작품인『소립자』와 세 번째 작품『플랫폼』에서 특히 그 강도가 심해진다. 공쿠르 상 수상작인『지도와 영토』에서부터 도발적인 성적 표현은 감소하지만 앞서 언급한『세로토닌』에서는 소아성애,『절멸시키기』에서는 근친상간과 같은 문제적 성행위 장면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우엘벡은 무엇보다 성기와 그에 상응하는 비속어 표현과 지속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차용한다.

나는 카트린 르샤르두아에게 어떠한 욕망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정말 그녀를 **농락**하고 싶은 욕망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미소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크레망을 마시고 용기를 내려 노력했다 ;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농락당**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그녀의 배 아래에 있는 그 구멍은 그녀에게 있어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다. 성기가 절단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질 안의 공백을 어떻게 잊어버릴 것인가?(Houellebecq 1994:53)

우엘벡의 인물들이 품고 있는 섹슈얼리티는 야생의 동물성으로 전락하며, 이들의 욕망은 철저하게 원초적이고 즉물적인 충족 행위로 드러난다. 17세기 이후 지속되어 온 여성에 대한 프랑스적 정중함(galanterie)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Viard 2013:20) 평을 들을 정도로, 우엘벡은 성기의 지속적인 명칭들과 천박한 표현을 그대로 서술한다. 여성 직장 동료인 카트린 르샤르두아의 욕망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농락하다(troncher)’라는 비속어 동사를 통해 표현되며, 우엘벡의 특징적 문체 중 하나인 이탤릭체로 표현되어 강조된다. 우엘벡의 성관계 묘사들은 연인들 간의 애정이 바탕으로 된 일반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작품 속 남성 주인공들의 성적 쾌락은 사랑과 교감이 아니라, 시각적 자극을 바탕으로 둔 즉각적인 육체적 욕망 충족을 의미

한다. 따라서 충족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 여성과의 성행위는 언제나 기계적이고 동물적인 수밖에 없다. 사랑이 결여된 성행위 속에서, 우엘벡은 비속어로 표현된 성적 묘사와 행위 당사자들 간의 상황을 노골적인 포르노 그라피로 만들어 버린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저속한 단어들(chatte, vulve, bite, queue)을 사용하여 성기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성행위에 관련된 노골적인 어휘들이 성행위 묘사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포유류 수컷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엘벡의 남성들은 저속한 성기 관련 표현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여성 신체를 인식하는 관점의 한계를 드러낸다. 클레망에 따르면, 우엘벡의 작품 속에서, 여성의 성기는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성에게 의해 포착되고 지칭된다(Clément 2018:171). 여성의 성기는 남성의 시선에 간혀 남성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이 되며(Clément 2018:175) 비속화된 여성의 성기들과 관련된 어휘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성적 좌절을 함축하면서 동시에, 여성에 대한 멸시적, 냉소적 시선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포르노그라피가 주로 남성 또는 한 쪽 성만의 일방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엘벡의 문학적 묘사는 포르노그라피의 효과와 동일한 원리를 갖는다. 우엘벡의 작품 속 여성들에 대한 저속한 묘사는 결국 포르노그라피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를 적나라하게 클로즈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 성기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우엘벡의 남성들은 다양한 성관계 방식을 통해 남성적인 성적 판타지를 충족하고자 애쓴다. 작가는 남성 인물들의 욕망 충족 행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소립자』의 주인공 브뤼노는 성적 강박증에 사로잡혀, 지하철 안에서의 수음행위와 일상적인 매춘 그리고 스와핑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노골적인 성행위를 시도한다. 매춘부에게는 스페인식 수음행위(branlette espagnole)를 요구하고, 파트너인 크리스티안과는 스와핑(partouze) 클럽을 전전한다. 다음 작품 『플랫폼』의 주인공 미셸 또한 연인 발레리와 3인 섹스(triololisme)에 몰두하고 그 대상은 쿠바 호텔에서 만난 청소부, 기차에서 만난 회사 간부까지 다양하게 등장한다. 수음행위에서 3인 성행위 혹은 스와핑까지, 성적 묘사는 철저하게 욕망의 좌절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 충족, 자유로운 성관계 속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교환적 행위’로 묘사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이 배

제된 우엘벡의 인물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교행위는 수음, 매춘, 스와핑과 같은 기계적인 욕망 해소에 불과하다. 사랑과 애정이 결여된 소설 속 인물들의 성적 행위는, 사랑과 에로티시즘의 철저한 분리에 대한 우엘벡의 비판을 드러낸다. 이 분리 속에서 우엘벡의 인물들은 서구인의 성적 좌절과 소외를 상징하며 이들의 성행위는 일차원적 욕망, 소유욕, 나르시시즘의 충족으로 전락해 버린다. 특히, 변질된 섹슈얼리티와 여성의 대상화는 현대 서구 사회의 성적 좌절과 관계의 불가능성을 내포한다. 우엘벡의 초기 작품들에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사회적 제도와 풍습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68혁명 이후 성적 쾌락으로부터 배제된 인물들의 좌절은 초기 작품들의 중요한 주제로서, 남성 주인공의 성적 좌절과 강박증 묘사에 우엘벡은 유난히 집중하고 있다.

포르노그래피라는 그 자체가 남성 지배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포르노그래피는 대상화된 여성에 집중함으로써, 대상을 조종하는 남성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매커니즘을 갖는다. 기든스가 지적하듯이, 포르노그래피는 여성 배우의 쾌락과 표정에 집중하면서 “여성의 쾌락을 길들이고 고립화”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든스 2001:188). 겉으로 보기에 여성의 성적 쾌락과 욕망 충족에 주목하는 포르노그래피의 전략은 실상 남성의 지배와 남성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의 욕망은 남성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성의 욕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알게 되는”(기든스 2001:189) 관점을 주입하는 것이 포르노그래피가 갖는 성적 지배이자 여성 혐오의 방식이다. 우엘벡의 포르노그래피적 묘사는 이러한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남성적 시선에 포착된 여성들의 쾌락과 남성 중심으로 제공되는 성관계의 방식은 여성의 복종을 가정한다. 우엘벡의 여성적 가치는 일차적으로 복종을 수행하는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한계점을 갖는 것이다. 클레망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우엘벡 작품에 드러나는 남성지배적 시각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우엘벡의 인물들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성관계는 전형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Clément 2003:110)이며, 작가가 남성에 악마적인 잔인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엘벡이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자주 언급하는 성행위인 구강성교(fellation)는 전형적인 우엘벡의 남성 지배적 위치를 표상한다(Clément 2018:136-137). 『플랫폼』의 두 주인공 미셸과 발레리 커플

의 경우, 여성인 발레리의 순응적인 성격은 미셸에 대한 복종 의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미셸은 성행위는 물론이고 일상 속에서도 철저히 지배하는 입장에 위치하여 파트너인 발레리를 조종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플랫폼』 뿐만 아니라, 『지도와 영토』의 커플인 제드와 올라, 여섯 번째 소설 『복종』의 프랑수아와 미리암 커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후자의 두 커플들은 남성지배가 유효하지 못할 때 커플 성립이 불가능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엘벡 작품 속 커플의 행복 조건은 남성 권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저속한 언어의 명칭 속에서 포착되는 성기들의 지칭과 포르노그래피가 갖는 대상화의 방식은 우엘벡의 여성 혐오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남성의 성적 욕망 충족만을 위한 행위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저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엘벡과 그의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 지점이다. 우엘벡의 문체 논쟁에서 작가를 지지했던 다비드 노게즈마저도, “우엘벡의 여성에 대한 묘사가 구역질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엘벡의 문체”(Noguez 2003:97)라며 말을 줄이고 이 특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작가를 두둔한다거나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

Ⅲ. 우엘벡의 남성성과 여성성

우엘벡의 왜곡된 여성성과 여성혐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우엘벡에게 남성과 남성성이란 무엇인가’이며, 이어서, ‘왜 작가는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언어와 내용을 묘사하는가’이다. 첫 번째 질문은 68혁명을 포함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 전체의 역사적 변동 속에서 해석 가능하다. 즉, 우엘벡은 혁명 이후의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고삐 풀린 인간 본성의 야생성과 잔인함을 본다. 남성성이란 간단히 자유와 경쟁이라는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관으로 설명된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말한 자유주의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68혁명이 가져온 사회변화와 관련을 갖는다.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가부장적 사회와 남성의 지배적 위상의 균열은 우엘벡의 남성 인물들이 보이는 저속한 시각과

행위들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우엘벡 작품 속의 선정적이고 비속한 묘사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가족 등의 상호적 가치들에 기반한 인간 관계 맺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우엘벡이 자의적으로 정의하는 남성성은 자유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 자체가 남성의 가장 저속한 측면인 동물성을 드러낸다. 자유주의는 우엘벡에게 단순히 경제적 시스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남성들이 가진 야생성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계급과 우위를 나누고, 위계화된 서열 전쟁에서 경쟁이라는 가치를 긍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먹이가 될 것을 권고하는 체제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장려되는 체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환원시키는 사회, 그리고 이를 경제학적으로 인정하는 체제 속에서 남성적 가치는 야생성과 폭력성으로 드러난다. 즉 우엘벡에게 있어서, 경쟁과 경쟁을 통한 위계화의 논리는 남성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그리고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경쟁과 투쟁의 남성적 원리는 경제학을 거쳐 모든 사회의 일상적인 영역으로 침투한다. 우엘벡은 이러한 의도를 첫 번째 소설 『투쟁 영역의 확장』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반자유주의자인 우엘벡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치가 일상의 영역인 성의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쟁의 원리가 동반하는 폭력 속에서 개인들의 불안감을 관찰한다. 『투쟁 영역의 확장』에는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지만 타고난 외모의 추함과 성적 경쟁력의 부재로 스물여섯 살까지 한 번도 성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라파엘 티스랑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동료인 티스랑을 보면서 성적 영역에서도 경제적인 총위와 마찬가지로 위계적인 계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그 이면에 자유주의가 파생시키는 경쟁에서 밀려난 성적 도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찰한다. 즉, 경제의 영역이 성의 영역까지 침투하여, 성의 영역에서도 빈곤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이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더욱 선명하게 제시될, 우엘벡의 작가로서의 전반적이고 주요한 목표를 표명하는 일종의 반자유주의 선언문의 역할을 한다.

돈과는 완전히 별개로, 성은 완벽히 새로운 구별짓기의 시스템이다. 적어도 성은 돈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혹한 구별짓기 체계다. 결국 돈과 성의 영역의 효과는 엄밀히 말해 똑같다. 고삐풀린 자유주의 경제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성적 자유주의는 *절대 빈곤화*를 야기한다. 어떤 이들은 매일 섹스를 하는데 ; 어떤 이들은 평생 대여섯 번에 그치거나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10명이 넘는 여성들과 섹스를 하는데 ; 어떤 이들은 평생 한 명과도 섹스를 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해고가 금지된 경제 체제에서는 각자가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간통이 금지된 성적 체제에서는 각자가 어떻게든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었다. 완벽히 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에서, 어떤 이들은 엄청난 양의 부를 축적하지만 ; 어떤 이들은 실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완벽히 자유주의적인 체제에서, 어떤 이들은 다양하고 자극적인 에로틱한 삶을 누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위행위와 고독만이 주어져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투쟁 영역의 확장이다. 투쟁 영역을 모든 연령대와 모든 사회의 계급으로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성적 자유주의도 투쟁 영역의 확장이다. 투쟁 영역을 모든 연령대와 모든 사회의 계급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영역에서 라파엘 리스랑은 승자이지만, 성적 영역에서 그는 패자이다. 어떤 이들은 그 두 영역에서 모두 성공하지만, 어떤 이들은 두 영역에서 모두 실패한다(Houellebecq 1994:114-115).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 이를 통해 개인 간의 위계화를 조직하는 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한 비판이 담긴 선언문 속에 우엘벡이 단정하는 남성적 특성이 드러난다. 자유주의적 경쟁은 내부의 투쟁과 폭력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서 뛰어난 우두머리를 차지하려는 수컷들의 욕망, 타인을 누르고 우월과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바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자유주의에 녹아 있다. 개체화의 논리 속에서 개별적 능력을 모든 결과의 기준점으로 가정하고 경쟁을 권장하는 야생의 법칙 속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짝을 이룬다. 우엘벡의 시각 속에서 개인주의는 언제나 고립과 배제의 법칙으로 작동한다. 개인적, 개별적 의식과 감정은 경쟁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와 결합의 가치들을 상실하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소외와 고립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주의가 갖는 근본적 특성에 있다. 그리고 우엘벡은 이러한 경쟁을 위한 논리적 함수인 개인과 개인의식, 즉 연대성과 이타주의를 상실한 개념들 또한 남성성의 영역임을 암시한다. 이에 따른 결과

는 경제적, 성적 영역에서의 빈곤화와 서로에게 냉소적인 사회의 형성이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여성에 대한 우엘벡의 혐오스러운 묘사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하는 혐오하는 대상은 사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며 남성성과 남성들의 가치체계이다. 즉, 적자생존 방식의 야생성과 경쟁 관계, 우열을 나누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체계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쟁성은 개체성이라는 허위의식에서 비롯되며 개체성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려 하기 때문에 폭력을 동반한다. 우엘벡에게 이 폭력성은 경쟁과 마찬가지로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의 발현이다. 작가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폭력성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간주한다. 우엘벡 작품 속에서, 연쇄 살인, 강간, 실제 폭력을 담은 스너프필름 촬영 등의 극단적인 물리적 폭력의 행사는 주로 남성이 주체가 된다. 폭력은 경쟁을 통한 욕망을 관철하고 위계화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남성적 방식의 근본적 속성이다. 『투쟁 영역의 확장』의 주인공이 나이트클럽이라는 성적 경쟁의 상징화된 공간 속에서 패배한 인물인 티스랑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경쟁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Houellebecq 1994:135).

이제 너는 그들의 삶을 소유할 수 있어. 오늘 저녁, 넌 살인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거지. 날 믿어, 친구야, 이것이 너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야. 칼끝에서 여자들이 벌벌 떨고 자신들의 젊음을 구걸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네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지. 너는 그녀들의 육체와 영혼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거야.

우엘벡의 말을 인용하자면, 폭력과 대립 이외에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남성들이 수행하는 문제해결 방식의 극단성이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티스랑이 지닌 선천적인 추한 외모와 이로 인한 성적 영역의 패배는 자연도태나 자연선택과 같은 경쟁의 원리는 물론, 자연법칙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면서 위계화를 구축하는 사회적 논리에 동시에 포함된다. 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상호간의 폭력투쟁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작가의 개념 속에서 자유주의의 합법적 폭력성은 티스랑에게 권고되는 살인의 폭력성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폭력성은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인 것이다. 작가는 단순히 자유주의 논리가 관철되는 사회

적 영역에서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폭력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 배치한다. 『소립자』의 제르진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화 과정 전의 남자아이들의 폭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본능적인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래 친구들은 두꺼비를 컴퍼스의 바늘로 찌르면서 즐거워하고, 거리낌 없이 달팽이의 눈을 가위로 도려낸다(Houellebecq 1998:164). 이 폭력성은 ‘어린 짐승’(jeune brute)이라고 표현되고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드러내는 남성적 폭력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여성들을 부드러운 존재(êtres doux)로(Houellebecq 1998:228) 대비시킴으로서 폭력성을 남성성으로 환원해 버린다.

다시 말해, 우엘벡 작품 속에서 남성성과 동일시된 폭력성은 현대 문명과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없다. 부르디외는 남성들의 지배적 본능은 자연 속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회화 과정, 즉 여성에 대한 차별화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부르디외 2003:73). 또한 남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적 가치를 끊임없이 표출하며 남성 상호 간의 타율성과 의존성을 보이며 동시에 남성적 가치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대한 공포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았다.(부르디외 2003:77) 그러나 우엘벡은 사회화 과정 이전에 폭력과 남성성의 선천적 내속 관계가 선행한다고 본다. 사회화 과정은 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폭력과 남성성 가치를 최적화할 뿐이다. 우엘벡이 자유주의적 체제를 통해 드러난 현대 사회의 속성에 남성적 폭력의 원리들을 대입시킨다고 해서, 남성적 폭력이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유(本有)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엘벡은 『어느 섬의 가능성』을 통해 이러한 인류 본연의 남성적 폭력성을 그려낸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유럽의 중세 이후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제도화된 정치경제적 폭력 그리고 제도권의 규칙을 위반하는 여러 형태의 범죄뿐만 아니라, 초기 석기시대와 같은 초기문명 상태의 인간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남성적 폭력을 묘사한다. 지배와 위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우위성을 지닌 남성에게 의해 유지된다. 가상 세계를 다룬 이 작품의 후반부는 욕망이 거세된 복제인간들의 공동체를 통해 구인류에 나타난 인간 본연의 욕망과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회로 황폐화된 현대 사회를 비교한다. 인간 복제 기술이 성공한 고도의 기술사회가 묘

사되지만, 인류는 핵전쟁과 대가뭄 등으로 인해 문명을 파괴하고 몇몇 구역에서 야생성을 간직한 초기 원시시대로 후퇴하고 만다. 동시에 복제 인간들 로만 꾸려진 신공동체는 기존 인류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들은 구성원들 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한 채 구인류를 배제시키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존속시켜 나간다. 그런데 복제 기술을 통해 탄생한 신생인류의 관점에서 조망된 원시 시대로 후퇴한 인류의 모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능에 따라 파괴와 살육, 구성원들 간의 계급화를 반복하고 있었다. 원시사회로 돌아간 구인류의 모습은, 동물계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힘이 월등한 능력을 가진 남성 개체가 모든 여성과의 성교를 독점하고 있으며(Houellebecq 2005:458), 여성을 희생 제물로 바치거나(Houellebecq 2005:459-460), 생존에 부적합한 늙은이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한 결투를 강요하고 여기서 진 패자의 인육을 먹는 장면(Houellebecq 2005:462-463) 등으로 묘사된다. 폭력적 남성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엘벡은 사회가 없어도 자연 상태의 남성성은 그 자체로 폭력성을 표출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Houellebecq 1994:125)라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의 가장 커다란 축 위에서, 남성적 폭력성은 더욱 활성화된다. 우엘벡의 작품 속에서 여성에 대한 묘사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과장되어 있지만, 인간의 폭력성, 정확히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묘사는 더욱 끔찍하게 드러난다. 이 폭력은 현대 사회에서 제어되지 못하고 더욱 일상적인 요소가 된다. 유럽 중세에 나타났던 야만적인 폭력성은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다. 우엘벡은 이 폭력성을 제르진스키의 시각에 조망된 어린아이들의 미발달된 제어 능력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관찰한다. 현대 사회는 문명화된 외관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갖는 믿음과는 전혀 달리, 포식동물적인 폭력성이 일상적이고 지배적이었던 야만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현재의 서구 사회는 위에서 묘사된 『어느 섬의 가능성』 속 원시사회 공동체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플랫폼』에서 한 여성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윤간 장면에 대한 잔인한 묘사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있음직한’ 에피소드임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Houellebecq 2001:206)

22시 15분에 일을 마치고 나가면서 택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22시 21분 열차를 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다. 객실은 4분의 3이 비어있었다. 네 명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곧바로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마릴리즈에 의하면 그들은 안틸레스제도 출신이었다. 그녀는 그들과 말도 하고 농담도 하려 시도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두 번의 따귀였고 그로 인해 그녀는 거의 기절 할 뻔 했다. 이어서 네 명의 남성은 그녀를 올라타기 시작했다. 두 명을 마릴리즈를 바닥으로 눌렀다. 그들은 사정없이 모든 구멍을 쑤서대며 마릴리즈를 끔찍하게 강간하였다. 마릴리즈가 소리를 내려할 때마다 그녀는 주먹질을 당하거나 따귀를 맞았다. 긴 시간이 흘렀고, 열차는 여러 역을 지나갔다. 그 때마다 승객들이 내리고 조심스럽게 객실을 옮겼다. 마릴리즈를 계속해서 교대로 강간하면서 그들은 농담을 하고 그녀에게 욕을 하였다. 그들을 마릴리즈를 창녀 취급하였고, 정액받이로 취급했다. 결국, 객실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마릴리즈에게 침을 뱉고, 그녀를 둘러싸고 단체로 그녀 위에 소변을 보았으며, 그녀를 발로 차서 좌석 밑으로 반쯤 숨겨놓듯이 밀어놓았다. 그리고 나선 조용히 파리 리옹역에서 내렸다. 2분 뒤에 열차에 탄 승객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바로 도착했다. 경찰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히려 마릴리즈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는데, 여성을 강간한 뒤 범죄자들은 그녀의 질이나 항문에 못이 박힌 막대기를 쑤서 박으면서 끝내버린다는 것이다. 이 노선은 위험한 노선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폭력의 일상성은 윤리적 제어기능이 상실된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폭력 또는 원시시대의 폭력성과 동일화된다. 자유주의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계층들의 범죄를 양산한다면, 우엘벡에게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사회학적인 해석 이전에, 자유주의 사회가 그 특성상 인간 본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폭력적 남성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데 있어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자유주의 시스템이 왜 일상의 폭력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우엘벡의 논리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화 과정 속에서 남성적 폭력을 제어해야 할 구조가 반대로 자유주의체계의 사회화 과정으로 구축되면서 윤리 도덕과 같은 제어기능과 연대와 결합이라는 사회화 장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소립자』에서 유전자 연구를 통해 서구 현대의 문제점을 유전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제르진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폭력성을 관찰함으로써, 폭력성은 주로 남성에게 부여되어 있는 특징이며, 남성은 폭력과 혁명 그리고 파괴와 재건설을 반복한다고 파악한다. 제르진스키의 유전자 조작 연구는 사실상, 남성성과 남성적 욕망에 대한 유전적 거세 작업이다. 그가 예견하는 서구의 종말과 이후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혁은 결국 남성성을 삭제하는 것에 있다. 그가 파악하는 남성성의 폭력은 진보와 생성 끊임없는 변화를 긍정하고 주창 하는 과정 속에서 감추어진다. 제르진스키가 보기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의지의 관철을 위해 기꺼이 타인을 희생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진보라는 가치를 정치학적으로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엘벡은 역사적, 사회적 시각과 자신이 정의하는 생물학적 시각을 종합하여 ‘남성성의 역사’가 이끌어온 진보와 변화라는 가치가 개인과 개체가 수행하는 파괴적 역할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때때로, 남성들은 역사를 진보시키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는 근본적으로 혁명과 전쟁을 촉발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명과 전쟁이 야기하는 어이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혁명과 전쟁은 과거의 가장 좋은 것들을 파괴하며 매년 모든 것을 백지화하여 재건설을 하게 할 뿐이다. 한결같은 흐름 속에서 점차적인 진보성을 띤 개선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는 혼돈적이고 파괴적이며 비규칙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남성들의 도박에 대한 위험과 취향, 기이한 허영심, 무책임성 그리고 타고난 폭력성에 있어) 이 모든 것에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Houellebecq 1998:165)

또래 남자아이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경험한 어린 시절에서 30년이 지난 후, 제르진스키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은 더욱 확고해진다. 그는 “여성들은 분명 남성보다 나았다. 여성들은 보다 더 상냥하고 정이 깊으며 더 동정적이고 온화하다. 여성들은 폭력, 이기주의, 자기 주장에 확신하려는 경향 그리고 잔인성에 경도되는 것이 덜하다. 게다가 여성들은 더 합리적이고 지성적이며 더 근면하다.(Houellebecq 1998:164)”고 판단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세계가 더욱 우월하며, 진보는 느릴지언정, 규칙적이며

모든 것을 황폐화하여 다시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일도 없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로 다가가게 될 것(Houellebecq 1998:165)”이라 결론짓는다.

우엘벡의 작품 속에서 여성이 지닌 미덕 또는, 여성의 주요한 능력으로 정의되는 사랑은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덕목으로, 작가에게는 현대 사회에 있어 그 존재론적 가치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소통 가능성과 연대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체제 속 우엘벡의 남성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제르진스키의 이복형제이자 남성적 성적 욕망의 충족을 강박적으로 실현하려 하는 또 다른 주인공 브뤼노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제르진스키와 같은 결론에 이른다. 브뤼노에게도 남성성은, 야만적 형태의 성적인 욕망과 수컷들끼리의 경쟁일 뿐이다. 또한, 남성들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자체를 경험할 수 없으며, 사랑 자체가 남성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감정(Houellebecq 1998:168)”이라고 자조한다. 이타주의가 결여되어 있고 이타주의는 비웃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엘벡의 남성들은 타인과 여성을 사랑할 수 없다. 브뤼노는 남성이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할머니와 같이 보살필 수 있는 감정이 남성에게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다(Houellebecq 1998:169).

작품 속에서 추악함으로만 점철된 남성성의 대척점에, 우엘벡은 여성성을 위치시킨다. 우엘벡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성을 명확히 이분화하여 정의한다. 즉 자연계에서의 일반적인 논리인 약육강식의 논리, 현대 사회의 경쟁과 위계화 본능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개체화 논리에 이기주의의 상징인 남성을 위치시킨다. 우엘벡의 문학 속에서 남성성은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를 심화하며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없는 고립을 야기한다. 반면에 여성성은 남성성의 정반대에 놓인다. 그리고 이 여성성은 고립과 배제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우엘벡 스스로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엘벡이 정의하는 여성성은 남성성이 야기하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해결방식이다. 우엘벡에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기주의를 야기하는 개체화 논리에 덜 근접해 있고, 자기희생의 능력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는 능력이 뛰어나고, 윤리적 의식에 대한 뛰어난 자질 그리고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남성보다 우월하다.

특히 제르진스키는 우엘벡이 정의하는 여성성에 대한 사고를 대표한다. 앞서 언급한 남성 아이들의 본능적인 잔인성과 대조되는 여성아이들의 선량함을 확인하고, 자신의 할머니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이타주의를 관찰한다. 제르진스키는 여성이 천성적으로 타인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있어 남성보다 우월한 자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단정한다.

헌신과 사랑으로서 평생을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인간들,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삶을 헌신과 사랑의 정신으로 타인에게 바친 인간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를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들, 헌신과 사랑의 정신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식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들. 실제 이런 이들은 대개 여성들이었다.(Houellebecq 1998:91)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적 경쟁과 위계를 조직하는 본능 그리고 상호투쟁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나타나는 남성적 특성은 타인에 대한 헌신, 상호 파괴적인 경쟁 가치의 거부, 자기희생의 윤리관으로 나타나는 여성성과 양립하기 힘들다. 자유, 자본주의 경쟁 체제가 내포하는 것은 결국 타자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욕망이며 경쟁은 필연적으로 약자와 도태된 자들을 만들어 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은 충분조건으로 동반된다. 따라서 작가의 철저한 반자유주의적 입장은, 남성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반대와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엘벡에게 여성성은 간단히 말해, 그의 반자유주의적 가치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서구는, 경쟁을 통해 우월함과 지배위치를 점유하려는 남성적 가치가 경제학적 구조는 물론 각종 현대 사회의 병폐와 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세계로 파급되어 왔다. 따라서 소설, 시, 에세이 등 우엘벡의 모든 작품들에서 남성성을 삭제하려는 문학적 상상력을 관찰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학을 통해 우엘벡은 남성적 가치들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표현하거나, 남성성 자체의 소멸을 표현한다. 인간 복제에 대한 그의 에세이 『남자들은 무슨 쓸모가 있나? À quoi servent les hommes?』에서, 우엘벡은 복제 양 돌리의 뉴스를 언급하면서, 남성이 삭제되고 여성들로만 구성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조건들이 구비되었고, 남성들이 조용히 삭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Houellebecq 2009:117)

IV. 왜곡된 여성성의 이면

우엘벡의 남성혐오에 대립해서, 반자유의적 가치, 연대와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여성성에 투영한다고 해도, 여성성에 대한 그의 정의가 여성혐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적 특징을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논리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고정화하는 시각은 우엘벡으로 하여금 여성혐오 혐의를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즉 작가 자신의 자의적 정의를 토대로 구축한 환상적 이미지에 찬사와 향수를 보이는 것은 그의 여성관에 있어 근본적인 오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엘벡을 여성혐오적 작가의 위상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성적 특징을 자의적으로 정형화시킨 특징으로 규정한 것에서부터 우엘벡은 이러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자의적 정의를 토대로 남성에 대한 여성성의 우월감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우엘벡은 여성성의 규정에 있어 남성적 시각의 판타지를 투영하고 있다. 다만 이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엘벡이 정의하는 여성성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들을 구성하는 원인들이다. 여성성을 규정하는 여러 특징들의 이면을 조망함으로써, 우엘벡이 지칭하는 여성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특성이 도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엘벡의 여성혐오 논란을 위해서는 남성 혐오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엘벡이 표현하는 현대 사회의 야만화 과정에는 남성적 가치로 투영된 자연성과 약육강식의 법칙과 경쟁논리가 있다. 자신만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이기주의 심리는 이러한 논리들에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우엘벡은 남성성의 사회학적 형성과정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은 내재적인 것임을 상징화하였다. 그에 비해 여성성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헌신적 가치에 있다. 여성적 가치와 이상적 여성성에 대한 우엘벡의 관점 속에서 작가 개인의 경험과 더불어 몇몇 사상가들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연민 개념과 결부된 여성적 특성에 대한 논

의이며, 다른 하나는 오귀스트 콩트가 강조하는 사회조직화에 있어 사회성에 대한 논의다. 물론 이 두 가지 논의가 나온 시점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논의들과 여성혐오적 사고가 여과 없이 유통된 19세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그 한계는 명백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구 사회의 사회적, 제도적 붕괴를 남성적 가치의 발현에서 찾는 우엘벡을 이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엘벡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고리타분하며 심지어 유지한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엘벡은 자신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또는 현대 사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이렇게 사랑이라는 개념의 추락은 현대 사회의 비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몇 세기를 거치며 이성과 합리화 과정이 진행된 서구 현대 사회 속에서, 우엘벡은 연대성을 상실한 차가운 계산적 이성과 금전욕과 성욕을 관철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폭력만을 본다. 그리고 모험과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서구 사회는 내면의 권태를 은폐하고, 자극적인 에로티시즘의 추구 속에서 사랑은 육체적인 교환행위로만 전락했다는 것만을 확인한다. 서구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존재론적으로 격하되었으며 이제 향수의 대상이 되었다. 우엘벡이 스스로 고리타분하다고 기술한 사랑의 존재론적 가치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이 가치는 자신이 정의하는 여성성과 결부된다. 작가는 헌신, 동정, 사랑이라는 가치를 여성성과 동일화하며 냉소적 이성, 합리주의 경쟁, 권력의지의 관철이라는 남성적 가치와 대립시킨다. 『투쟁 영역의 확장』의 주인공은 “존재론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경이로운 힘을 작동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며, 우엘벡은 한 시에서 “사랑의 이상적 특성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전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았다(Houellebecq 1991:10)”고 기술한다.

우엘벡이 정의하는 사랑에 대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개체로서의 고립적 위상을 벗어나게 하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신비주의적 감정이다. 사랑은 개인적 고립감을 없애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급격한 인식 변동을 불러오며 그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힘’이다. 『세로토닌』의 주인공은 이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성에게 사랑은 창조적이고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힘이다. 여성에게 사랑이 발현될 때, 사랑은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사랑은 지진이나 기후 격변과 같은 질서를 가진 창조적인 힘으로 경외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사랑은 또 다른 생태계, 다른 환경, 다른 세계를 만드는 기원이 되며, 이 사랑을 통해 여성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다. 불확실한 존재 속에서 곤경에 빠져있고 고립된 존재들 속에서도 여성은 감성적이고 새롭게 생성되는 커플과 사회적 개체의 존재 조건을 창조해낸다. 그리고 이 조건은 기존의 개체들의 흔적을 지운다. [...] 여성은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지 않는다. 여성에게 이러한 분리는 가치 없는 남성들의 궤변일 뿐이다.(Houellebecq 2019:70-71)

개체성을 지우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현대성의 악을 극복하고 결합과 연대를 복원하는 치유책은 여전히 사랑에 있고, 우엘벡은 사랑이 지닌 신비스럽고 전복적인 힘은 우선적으로는 여성에게 주어진다고 믿는다. 여성의 사랑은 원심력과 같은 분리로 대표되는 남성성을 교정한다. 따라서 우엘벡의 사랑 관념은 인식변화를 수반함과 동시에 윤리와 도덕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사랑을 도덕률로 받아들이는 우엘벡의 관점은 쇼펜하우어의 영향 아래 놓인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연민의 도덕은 우엘벡에게도 최선의 윤리가 된다. 연민은 개체성과 그에 수반되는 이기심과 상호폭력을 정지시킨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에 있어서도 연민의 도덕을 수행하는 자질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하다. 동점심을 최고의 도덕률로 간주하는 쇼펜하우어는 『도덕의 기초 *Le Fondement de la morale*』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측면에는 바로 여성이 지닌 인간애의 미덕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정심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Schopenhauer 2009:346) 우엘벡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쇼펜하우어의 연민의 도덕을 자신의 도덕률에 그대로 반영하고, 사랑의 자질에 있어서도 여성이 우월한 자질을 지녔다고 본다. 동시에 여성의 도덕적 특성은 비윤리성과 폭력성을 보이는 남성과 대조된다. 도덕적 특성과 전통적 선(Bien)에 대한 관념을 복원하고자 하는 우엘벡에게 이 두 가지 특성은 무엇보다 여성적 특성이다. 서구 사회의 황폐함을 가져온 악(Mal)은 남성적 가치의 지배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우엘벡은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한 니체의 전복을 다시 전복하려 한다. 또한 사랑과 연민의 가치를 폄훼하고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여성성에 대한 저주를 퍼부은 니체의 개념을 다시 전복하려 한다. 연민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은, 여성성의 왜곡된 이상화라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도덕, 윤리, 선 개념의 복원이라는 우엘벡의 의도와 맞물려 있다.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의 부여는 단순한 윤리적 가치의 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립자』와 『어느 섬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우엘벡의 많은 작품에는 사회성으로서의 여성적 가치의 우월성이 드러난다. 특히 이 두 작품에서 전망하는 가상적 미래사회는 무엇보다 여성성을 띤다. ‘미래는 여성적이 될 것이다’와 같은 표현들은 작품 인물들이 구상하는 재조직된 미래의 핵심 개념들이 된다. 비록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의 상징성과 비교되는 한계점이 있고 여러 모호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어느 섬의 가능성』에 나타난 신인류의 리더로 등장하는 ‘궁극의 자매’는 우엘벡의 여성화된 미래 프로젝트의 핵심적 개념이다.

이 점에 있어 우엘벡은 자신의 또 다른 멘토인 콩트의 여성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프랑스 혁명을 벗어나 새로운 질서와 사회조직을 창조하려는 콩트의 프로젝트에서 세 가지 중요한 행위주체는 철학자,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이다. 여성으로 상징화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영역으로 사고의 주체인 철학자, 행위의 주체인 노동자와 조합을 이룬다. 물론 콩트 역시 여성을 감정적 주체로 상정하고, 사회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제한하고자 하며,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이성 능력을 깎아내리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이성 능력보다 연민의 자질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콩트는 여성이 지닌 자질에 다른 두 주체인 철학자와 노동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이처럼 콩트가 설명하는 여성의 역할은 새로운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원리로서 우엘벡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쇼펜하우어의 개체적 논리로부터 이기주의와 경쟁의 폭력이 나타났고 이러한 점들이 우엘벡의 문학에서 남성적 가치로 표상되었다. 콩트의 체제는 현대 사회의 혼란함이 개인주의에 있다고 보며, 콩트는 사회성이 개인성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기에 개인적 권리보다는 개인의 의무를 더욱 중요시한다. 쇼펜하우어가 개체의 의지나 욕망을 억제하려 하는 것처럼 콩트는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 개념은 반사회적

이고 무정부적인 것이라 혹평을 가한다(콩트 2005:408). 우엘백과 마찬가지로 두 철학자 모두 전체론적 관념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철학적, 사회적인 위상과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개체성과 개인주의성을 극복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두 철학자는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바로 그들이 정의하는 여성성에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연민으로서의 도덕률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성을 개인성보다 중요시하는 자질이다. 사랑의 덕목만이 이 사회성을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덕목을 수행하는 역할은 여성으로서, 여성은 이성의 포화와 행위의 무정부성, 철학자와 노동자를 교정하는 역할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은 철학자, 노동자와 함께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룬다. 앞서 『세로토닌』에서 인용한 여성의 사랑에 대한 기술에서, ‘새로운 사회의 창출’, ‘새로운 커플과 사회 개체의 창출’과 ‘개체성의 삭제’는 바로 쇼펜하우어와 콩트의 사랑과 여성성에 대한 개념들이 종합되어 나타난다.

우엘백 문학에서 드러나는 여성과 여성성의 승배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엘백의 포르노그래피에서 저속하게 비하되는 여성과 여성의 신체를 반어법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비아르는 우엘백이 구사하는 여성혐오적 표현들은 작품 속 화자들의 좌절을 나타낸다고 진단한다(Viard 2008:46). 즉, 노골적이고 반감이 드는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저속한 표현에는 작품 속 남성들의 접근 불가능성과 무력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력감은 여성 자체를 비속화하거나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유주의화된 성적 투쟁의장에서 배제되어 무력해진 인물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나오는 냉소성이다. 따라서 우엘백의 저속한 표현과 증오의 표현들은 반대로 생각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노골적인 포르노그래피 형식의 성적 묘사들은, 사랑과 에로티즘이 분리된 서구 사회의 변질된 섹슈얼리티를 공격한다. 남성적 판타지로 가득하며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도 상실된 성적 욕망의 발현은 서구 사회의 섹슈얼리티의 전락일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엘백은 현대 사회에서 정조와 순수함의 상실을 아쉬워한다. 그는 반어법과 아이러니를 이용하여 작품 인물들의 좌절을 드러내는 것이다(Wesemael-Viard 2013:84). 비아르는 우엘백을 읽을 때는, 무엇보다, “모든 단언들을 상대화시키는 작가

의 아이러니, 반어법 등을 염두에 둘 것”을 설명하며(Clément·Wesemael 2007:33) 작가에 대한 단순 독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섹슈얼리티의 불가능성은 작품 속 남성들의 사랑의 불가능성에 기인한다. 이 불가능성의 기원은 모성애의 결여에서 나오는 정서능력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아르는 우엘벡 작품 속 남성인물들의 성적 좌절의 기저에 모성애의 부재가 있음을 지적한다. 우엘벡을 현대의 낭만주의 작가로 분류하는 비아르는, 19세기 낭만주의 작가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처럼, 우엘벡 역시 어머니의 부재와 그로 인한 기본적 사랑의 결여와 버림받음에 대한 좌절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모성애는 최초로 발신되고 증여되는 사랑이다. 사랑은 상호적 특성이기에 사랑은 받으면 돌려주는 것이지만, 최초의 사랑인 모성애가 수신되지 않은 이들은 타인에게 사랑을 주는 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주고 받고 다시 주는 끊임없는 상호운동 속에서, 호의와 우정 그리고 사랑이 창출되고 유지된다”(Clément·Wesemael 2007:34). 이러한 사랑의 주고받음을 경험하지 못한 우엘벡의 인물, 주로 남성인물들에게 성적 좌절과 변태적 판타지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사랑과 감성의 부재 속에서 냉소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불안정하여 성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호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고받을 수 없는 타자와 여성들은 대상화되고, 사랑과 성행위는 욕망의 소비 상품과 같은 포르노그라피로 전락하며, 여성과 성기 역시 마치 기계 부품처럼 지칭된다. 자신이 옹호하는 가치를 오히려 역으로 전복시켜 저속하게 표현함으로써, 우엘벡은 도덕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 상실된 현대 시대를 비판하는 것이다.

현대 유럽의 섹슈얼리티의 퇴조가 자유주의의 확산과 사랑의 상실에 있다면, 우엘벡 작품의 잔인한 여성인물들은 그 결과물이다. 우엘벡은 공공연하게 모성애와 자애로운 여성을 찬양해 왔음에도, 정작 여성을 남성보다 더욱 가혹하게 그려낸다고 비판받는다(Clément 2003:98-99). 예를 들어, 『투쟁 영역의 확장』에서 주인공의 동거인이었던 베로니크는 경찰을 불러 주인공을 집에서 내쫓아 버리는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소림자』의 크리스티안은 연인 브뤼노보다 아들과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아나벨은 자신의 임신을 위해서 주인공 미셸을 이용한다고 비판한다(Clément 2003:97). 결국 여성들은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 남성 세계에 편입한 대가를

치른다. 우엘벡이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을 잔인한 성격으로 묘사하는 것은 근본적 여성성에 대한 폄훼의 의도가 아니다. 우엘벡 자신이 비판하는 남성적 가치에 함몰된 여성들을 그려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우엘벡은 여성적 가치를 찬양하지만, 정작 자신이 비판하는 남성적 가치에 함몰된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스스로 모순적인 입장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남성 지배 속에서 여성들은 전복적 힘을 갖지도 못하고 우엘벡의 긍정적인 여성성을 끝까지 수행할 수도 없다. 결국 죽음을 통해 여성성은 우엘벡이 지향하는 가치와 괴리되어 남성적 욕망을 수행하고 남성적인 잔인성과 동화된다.

이 여성들은 우엘벡의 남성적 가치와 남성성을 그대로 체화한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소립자』의 두 주인공의 어머니 자닌 세칼디(Janine Ceccaldi)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닌은 작가 미셸 우엘벡 어머니의 본명으로서, 우엘벡은 어머니를 향한 개인적인 증오를 드러내며 어머니의 실명을 그대로 작품에 사용하였다.『소립자』에서 자닌 세칼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모성애의 결핍을 초래한 인물로 두 아들을 버리고 그들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성적 해방과 성적 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사건이 된 68년 5월을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자닌 세칼디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지켜온 일이며 ‘자신의 개인적 자유’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Houellebecq 1998:28)하고 아이들을 조부모나 남편에게 맡기고 육아를 포기한다. 68혁명으로 인해 고삐가 풀려버린 성적 자유는, 과거의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로 무장한 혁명이 왕과 신을 죽인 것에 이어, 마지막으로 가정마저 파괴해 버린다. 여성들은 남성적 가치인 무책임한 자유주의와 경쟁에 편입됨으로써 서구는 자신을 보존해오던 보호 단위를 상실한다. 우엘벡의 작품 속에서 여성이 잔인하게 묘사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설정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악하거나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의 죽음은 자유주의적이고 남성적인 가치관에 동화된 여성들의 비극을 의미한다. 노박르슈 발리에는 여성의 죽음을 현대 사회의 남성적 가치관과 대립되는 여성성의 죽음으로 해석한다.

우엘벡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

다. 여성들은 그저 현대 사회에 의해 잔인하게 부서지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죽는 이유는 저항력이 더 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자신들이 대립하는 남성들보다 정서적 힘과 신의 그리고 도덕적 감각에 있어 여성들이 더 탁월한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Novak-Lechevalier 2019:61-62)

우엘벡의 현대 사회 비판 지점의 핵심 중 하나인 성적 자유주의에 있어 68혁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68혁명이 최소한의 공동체 역할을 해주던 마지막 단위인 가족을 소멸시켰다고 본다. 우엘벡에게 68혁명은 풍속과 사고의 해방, 권위로부터의 해방적 힘이 아니라,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파괴적 힘이자 남성적 힘이다. 그러므로 68혁명의 상징성을 띄고 있는 자닌 세칼디는 우엘벡의 정의에 따른 여성성을 갖춘 여성이 아니라 남성적 가치와 악에 함몰된 인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여성과 68혁명으로 대표되는 여성 해방적 가치를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남성적 가치에 의해 붕괴되는 사회 공동체의 소멸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남성적 가치인 자유주의와 약육강식의 경쟁 논리에 편입된 여성들은 비극적으로 죽는다. 콩트는 ‘여성은 경쟁 상태를 견딜 수 없’(콩트 2005:290)는데, 경쟁은 개인 간의 상호적 감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콩트에게 상호적 감정은 사회성을 조직하기 위한 주요 요소가 된다. 우엘벡 작품 속에서 남성적 가치로 변환된 자유주의 경쟁은 68혁명의 변혁기간을 통해 바로 이러한 사회성과 상호감정의 소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여성성, 사랑, 가족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연결에 필요한 필수 감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 상실이 우엘벡에게 있어 여성과 여성성의 죽음이다.『소립자』의 제르진스키의 청소년기 시절의 연인이었던 아나벨은, 성적 자유주의 분위기에 휩쓸려 어린 시절 제르진스키와의 관계를 버리고 수많은 남성들과의 성적 관계를 지속한다. 그러나 아나벨을 뒤늦게 깨닫는다. 모든 남성들의 목표는 언제나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기 위함이었고, 성관계 속에서 남성들의 표정은 언제나 경쟁에서 승리한 정복과 여성지배의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40대가 되어 제르진스키와 재회하지만 아나벨은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사망한다. 우엘벡 작품 속에서, 자유주의 시대에 휩쓸려간 순수함과 사랑의 가치는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아나

벨이 임신을 위해 제르진스키를 이용하려 했다는 클레망의 분석(Clément 2003 참조)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뒤늦게 남성적 가치의 시대를 거부하고 다시 찾은 사랑의 결실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기대하는 일종의 헌신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닌 세칼디와 정반대의 지점에 위치한다. 아나벨의 죽음은 한 번 무너진 가치와 제도는 다시 복원되기 힘들다는 우엘벡의 사고를 대변한다. 크리스티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스와핑 클럽에서의 사고로 불구가 된 후, 연인 브뤼노에게 버림받을 것을 예감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 장면 역시 성적 자유주의화의 비극적 결말이다. 자신의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여 돌보지 않는 브뤼노,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바로 ‘차버리고’ 아들이 자살했을 때 ‘토마토 계란 샐러드를 해먹었다’고 말하는 냉혹함을 보이는『어느 섬의 가능성』의 다니엘1과 달리, 크리스티안은 일탈 행동을 일삼는 아들을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아들의 양육 의무를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불구가 되어 성적, 심리적으로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크리스티안을 보살펴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남성인 브뤼노다. 결국 크리스티안은 남성들의 냉소적 이성과 사랑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

이처럼 우엘벡의 여성 묘사가 복합적인 의미를 띠며 오히려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엘벡 스스로 반페미니즘을 자처한다는 사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엘벡의 반페미니스트적 성향은 니체가 말한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혐오(Nietzsche 1997 참조)와는 결이 다르다. 여성성을 정형화된 시선과 남성적 가치에 입각한 이상적 모습으로 고착화하려 하는 우엘벡의 한계는 물론 명확하지만, 그의 반페미니즘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엘벡은 자유주의와 경쟁과 같은 남성적 가치를 여성화하려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 반기를 든다. 노박르슈발리에에 따르면, 우엘벡의 페미니즘 비판은 남성적 가치를 여성화하려는 데 핵심이 있다. 우엘벡은 남성적 가치들로 인해 몰락하는 서구 사회의 비극으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을 끌고 가려 한다고 비판한다. 작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남성들이 자행하는 폭력과 이기주의를 여성들도 똑같이 수행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우엘벡의 의도는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Novak-Lechevalier

2019:62). 반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현 사회의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남성적 가치들의 파괴와 해체를 희망한다. 현대 서구 사회의 악 속에서 죽는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우엘백의 모든 남성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자행해 온 폭력과 이기주의로 인해 자신들 또한 남성적 가치 속에서 죽는다. 브뤼노와 다니엘1 뿐만 아니라, 최근 작품인 『세로토닌』과 『절멸시키기』에서도, 남성 주인공들은 서구 사회의 사랑의 부재와, 냉소적인 합리주의를 경험하며 자살한다. 우엘백의 반페미니즘과 여성 혐오는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혐오, 즉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혐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V. 나가며

우엘백은 첫 소설 작품 이후 끊임없는 논쟁에 휘말렸고, 작품과 관련되어 문학적, 정치적인 방면에서 찬반양론을 대립시켰다. 특히, 초기 작품들에 제기된 비평들은 여러 자극적 소재들, 건조하고 특징 없는 문체에 더하여 여성혐오와 잔인한 폭력성, 인종주의와 같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작가의 주제의식에 집중되었다. 외설적인 선정성뿐만 아니라, 잔인한 폭력성과 갖가지 문제적 묘사들은 작가에 대한 표면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플랫폼』과 『세로토닌』에서 나타나는 소아성애와 영아살해와 같은 자극적인 주제들이 등장했고, 『소립자』와 『지도와 영토』에서는 고어 영화보다 더욱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잔인한 살인 장면들이 묘사되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재들의 반복적인 등장은 우엘백으로 하여금 부정적 의미에서 끊임 없이 ‘도발적인 작가’로 간주되게 만들었다(Patricola 2005:73). 여러 논쟁적 지점들 중에서도 본 연구는 우엘백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혐오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논의하고자 하였다. 남성적 시선에 의한 여성성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비록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성에 대한 왜곡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작가와 작중인물들의 시각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엘백 남성들이 내뿜는 저속한 표현들의 책임으로부터 저자가 완전

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 대춘부터 스와핑 및 여러 형태의 성관계 행위로부터, 레즈비언 성행위와 성적욕망은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성적 판타지에 활용되어 왔다(Clément 2003:114). 남성인물들의 성적 강박에 매인 욕망의 충족 과정 속에서, 성적 쾌락은 여성들을 철저히 소비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육체에 대한 접근의 불가능성과 여성과의 사랑에 대한 불가능성은 성적 좌절로 이어지고, 언어적으로는 혐오적 표현과 비속어로 여성과 여성의 신체를 비하한다. 잔인한 폭력성의 묘사와 더불어, 포르노그래피를 통한 선정성을 통해 저작의 상업적 판매를 높여려는 수단이라는 비난까지 우엘벡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우엘벡의 기본적인 ‘비정치적 올바름’의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를 감안했을 때, 성적인 측면과 폭력적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엘벡의 여성혐오적 표현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작가를 변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작품의 표면적인 특징들에 주목하여 작가에게 항상 제기되는 일차적인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작품의 도발성과 노골적인 선정성 뒤에 숨은 다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 중에서도 우엘벡 작품에 드러난 여성혐오의 근거는 무엇이며, 왜 이런 시각을 표출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우엘벡을 단순한 여성혐오 작가로 비판하는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그 이면의 다양한 논의와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엘벡의 여성 혐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남성혐오를 읽어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우엘벡에게 있어, 남성적 가치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와 사회 전방위적 확장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투쟁논리에 대한 거부는 그의 소설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우엘벡 작품에 나타나는 세계의 비참함은 자유주의의 끊임없는 확장에 있으며, 이는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개인적인 영역까지 확장하여 끊임없는 빈곤화를 양산한다. 작가에게 남성성은 상호 간의 끊임없는 폭력으로 정의되며, 그의 유명한 반자유주의 노선은 남성혐오로 상징화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발레리 솔라나스에 대한 평론에서 우엘벡은 그녀의 나치적 판타지를 비판하면서도, 도덕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인간 본성을 기술적으로 변

경하는 것에는 동의한다(Houellebecq 2009:172). 즉, 우엘벡은 기술에 의한 자가생식이 가능해지고 수컷이 필요 없게 된다면, 수컷을 절멸시키는 사회에 대하여 긍정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우엘벡이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여성성은, 자신이 정의하는 혐오스러운 남성성에 기반하여 남성성에 대한 대립적 가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연민의 도덕률과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사회성 그리고 권리보다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조직 원리 등이 여성성과 여성적 가치로 부여되는 것이다. 비록 여성성에 대한 원칙적인 왜곡과 이상화라는 비판은 유효하지 않지만, 우엘벡은 자신의 여성성에 사회 개선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성에 대한 강조가 부정적인 의미의 개인주의로 변질되었고, 각 개인은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우엘벡의 비판은 도덕률의 회복과 개인성에 대한 제고라는 사회개선에 대한 입장으로 이어진다. 『소립자』와 『어느 섬의 가능성』에 나타나는 미래 신인류 사회를 여성적인 특성으로 그려내는 것과, 공동체 리더의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려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품 전체를 걸쳐 시도하는 우엘벡의 일차적 목표는 여성성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적 가치의 복원에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앤소니 기든스(2001),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옮김, 새물결.
- 정승옥(2012), 「포르노그래피, 에로티시즘 그리고 문학」, 인문과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5-115.
- 피에르 부르디외(2003), 『남성지배』, 김용숙 옮김, 동문선.
- Compte, A. 지음, 김점석 옮김(2005), 『실증주의 서설』, 한길사
- Clément, Murielle Lucie(2003), *Houellebecq, sperme et sang*, Paris, L'Harmattan.
- Clément, Murielle Lucie(2018), *Michel Houellebecq, sexuellement correct*, Paris, MLC.
- Clément, Murielle Lucie et Van Wesemael, Sabine (dir.) (2007), *Michel Houellebecq sous la loupe*, Amsterdam, New York. Rodopi.
- Houellebecq, Michel(1991)a, *Rester vivant*, Éditions de La Différence.
- Houellebecq, Michel(1991)b, *La Poursuite du bonheur*, Éditions de La Différence.
- Houellebecq, Michel(1994), *Extension du domaine de la lutte*, Paris, Maurice Nadeau.
- Houellebecq, Michel(1998), *Les particules élémentaires*, Paris, Flammarion.
- Houellebecq, Michel(2000), *Lanzarote*, Paris, Flammarion.
- Houellebecq, Michel(2001), *Plateforme*, Paris, Flammarion.
- Houellebecq, Michel(2005), *La possibilité d'une île*, Paris, Fayard.
- Houellebecq, Michel(2009), *Intervention 2*, Paris, Flammarion.
- Houellebecq, Michel(2010), *La Carte et le Territoire*, Flammarion.
- Houellebecq, Michel(2015), *Soumission*, Flammarion.
- Houellebecq, Michel(2019), *Sérotonine*, Flammarion.
- Huston, Nancy(2004), *Professeurs de désespoir*, Actes Sud, Arles.
- Moor, Louise(2012), “Posture polémique ou polémisation de la posture ?”, in CONTEXTES, En ligne, 1-16.

- Naulleau, Eric(2005), *Au secours, Houellebecq revient !*, Paris, Chiflet & Cie.
- Nietzsche Friedrich(1997), *Le Gai savoir*, Paris, Flammarion.
- Noguez, Dominique(2003), *Houellebecq, en fait*, Paris, Fayard.
- Novak-Lechevalier(2019), *Agathe, Houellebecq, l'art de la consolation*, Paris, Stock.
- Patricola Jean-François(2005), *Houellebecq ou la provocation permanente*, Paris, Écriture.
- Da Rocha Soares, Corina(2010), “L'équivoque chez Michel Houellebecq : subtilités d'un personnage ambigu”, in *Carnets, Première Série 2*, 123-149.
- Schopenhauer, Arthur(2009), *Les Deux problèmes fondamentaux de l'éthique*, composé de deux mémoires : *La Liberté de la volonté humaine* et *Le Fondement de la morale*, traduit par Christian Sommer, Folio [Gallimard].
- Van Wesemael, Sabine(2005), *Michel Houellebecq : Plaisir de texte*, Paris, L'Harmattan.
- Van Wesemael, Sabine(2011), *Le Roman transgressif contemporain : De Bret Easton Ellis à Michel Houellebecq*, Paris, L'Harmattan.
- Van Wesemael, Sabine et Viard, Bruno (dir.) (2013), *L'Unité de l'œuvre de Michel Houellebecq*, Paris, Paris Classiques Garnier, 2013.
- Viard Bruno(2008), *Houellebecq au laser. La faute à Mai 68*, Nice, Les Edition ovadia.
- Viard Bruno(2013), *Les Tiroirs de Michel Houellebecq*,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ABSTRACT

A study of misogyny in Michel Houellebecq's work

Gang Minsu
Yonsei University

Michel Houellebecq, the novelist who emerged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s known for his controversies in the literary and political field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riticism levelled at the author, who is accused of misogynistic approaches. The triviality and obscenity of women and their sexual organs in Houellebecq's novels make it difficult to understand him, and he is accused of being a fastidious misogynist. However, Houellebecq must be read in the second degree to understand his antiphrases and the author's criticism of the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included in the extension of liberalism from the economic to the sexual sphere. Houellebecq, contrary to the suspicion of misogyny, defends feminine values, such as devotion, tenderness, compassion, and altruism; however, these values are increasingly being crushed by the male world. On the flip side of misogynistic expression, Houellebecq sets out his misandrist vision for destructive masculine values, such as liberalism and infinite competition. These two factors are nothing other than the foundation of distress in Houellebecq's characters, which the author has bitterly disapproved of since the publication of his first novel. In short, his misogynistic provocations call for opposite reading.

Keywords: Michel Houellebecq, misogyny, misandry, pornography, liberalism

34 비교문화연구 제70집(2023.10)

■ 논문투고일 : 2023. 09. 10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